

광주 광산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올인...광주 발전 중심축 도약

광주 광산구 '기업 만족도 전국 1위' 비결은

한때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변두리 지역으로 여겨졌던 광산구가 민형배 정장 체제 이후 체질개선에 성공하면서 광주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산구는 특히 지역 주민의 이익 및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기업만족도 전국 1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전국 자치단체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광산구청을 방문해 인증식을 갖고 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인증식에는 민형배 구청장과 이정연 소촌농공단지 운영자협의회장, 김보근 평동산업단지 운영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인증서를 광산구에 전달하고, '2016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1위' 자치단체를 알리는 현판을 민 구청장과 함께 정사 현관에 부착했다.

박 회장은 "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진화성 조사와 달리 체감도 조사는 조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의 태도와 의지, 사업 절차를 종합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광산구의 기업중심 행정에 대한 노력을 극찬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16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조사를 위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규제 정책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 만족도를 집중 점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사에서 광산구의 5개 산업단지 운영협의회와 상시 협의체계 구축, 매일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추진 등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높이 평가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1위로 선정했다.

실제 광산구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자금·보증·연구개발 분야 지원사업에 응모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주력 산업인 금형산업체 제작자 역량 강화 교육 등에 나서는 등 기업이 원한다면 작은 부분까지도 맞춤형 지원에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실무교육 등 맞춤형 지원 성과 전국 자치단체 롤모델 급부상 박용만 상의회장 인증서 전달 "자치구 해결 노력 돋보였다" "현장 목소리 소중히 여긴다" 입주업체들도 극찬 잇따라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특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공장의 입지와 설립시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조인하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 이 같은 기업 중심형 행정은 산업현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평동산업단지 금형기업을 운영하는 승광 김춘에 대표는 광산구의 행정 지원을 묻는 질문에 가로등 얘기를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작년 5월 광산구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장 주변 진입도로의 가로등이 어둡고, 건너편 부지의 배수가 잘 안돼 도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는데, 간담회가 끝난 즉시 민원이 해결됐다. 광산구에서 도로 가로등을 전부 교체하고, 하수도 정비도 마친 걸 보고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업 관련 법 개정으로 공장터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광산구에서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고, 이전 대상지에 업종과 건축허가 가능성 등을 사전 컨설팅에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아줬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형배 구청장의 행보는 최근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를 오가는 등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민 구청장은 최근에 지난 17일 서울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규제에 묶은 평동산업 일부 기업의 사정을 전하고, 협조를 호소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홍 장관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6년 기업환경평가 우수지역' 지자체장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만나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국유재산법에 묶여 공장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기획재정부에 둔 국유재산법이 원인인데, 이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민 구청장이 이날 평동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15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지난 2013년 5월 평동산업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이들 기업은 20년 동안 매수대금을 나눠내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마련했는데, 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는 탓에 생산 증산 등을 위해 공장을 증·개축 조치할 수 없는 처지다.

이들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국유재산법'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장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인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산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업만족도를 얻은 데 만족하지 않고, 이 같은 노력들이 실물영역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거두도록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투자...건강한 경제 생태계 만들 것"

민형배 광산구청장 인터뷰

"기업 지원정책·환경개선 강화 지역경제 성장률 1위도 도전"

-기업체감도 전국 1위에 광산구가 선정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여서 처음엔 얼떨떨했다. 지금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지금까지 해 온 기업 지원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 자치구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를 직접 주기 위해 최근 구청을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

사실 법을 개정하거나 규제를 직접 풀 권한이 자치구에는 없고, 재정상황도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기업 지원

전략을 세웠다. 첫째는 공장 주변 환경 개선 같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처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전문 기관과 힘을 모아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두 가지 전략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기업 규제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모든 규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좋은 방향의 규제 개선은 돈 안 드는 투자다. 일자리

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기업과 사람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경제 생태계와 조화와 건강에 기여하는 쪽으로 규제를 점검하겠다. 광산구는 전체 공직자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내실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찾았다.

-앞으로 기업 지원과 관련한 계획은.

▲기업인의 신뢰로 광산구는 좋은 사회적 자본을 얻었다. 이 자본을 발판 삼아 실물경제에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구라는 한계를 외부의 전문 기관과 연대하는 것으로 극복할 생각이다. 기업 만족도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엔 지역 경제성장률 1위에 도전하겠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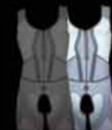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

